

箕子東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권중(중앙대) 이성규(단국대)

<목차>

1. 서론
2. 기자 및 그의 동래에 관한 중국인들의 인식
3. 한국에서의 기자에 관한 인식
4. 조선시대의 기자조선 및 그의 업적에 대한 신봉
5. 기자, 기자동래, 및 기자조선과 관련된 의문
6. 알타이어 자료에 의한 기자 명칭의
7.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시대마다 인식의 양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국인 기자가 한반도에 와서 교화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찍이 문명국가의 대열에 속하였다는 인식이 대한제국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러한 인식은 중국과 대등한 문명국가라는 자긍심의 근거가 되거나, 중국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국가라는 의식의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에서는 시대마다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할 때 그 역사적 동원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아 온 것이 바로 기자에 관한 그들의 인식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중국의 동북 공정에서 한반도를 그들의 역사와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근거도 바로 이러한 기자의 존재와 그의 동래설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자의 존재와 그의 동래 여부 및 그 동래에 의한 교화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근대 민족주의사학자들로부터 기자 관련 역사적 사실의 제인식의 부당함이나 부정확함을 비판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사학은 물론 철학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한 연구성과를 거두어서 대한제국까지 계승되어 온 기자 관련 역사적 제인식의 교정을 해왔다. 현재 아직 그러한 기자의 인식에 대한 정설이 수립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도 매우 상당한 연구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가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의 동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어학 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덧붙임으로써 기자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알타이어 계통의 사료로부터 기자의 존재와 그 의미를 밝히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한국 역사 자료를 추적함으로써 기자의 의미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자 및 그의 동래라는 역사적 인식과 관련된 현재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 혹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기자 관련 역사적 인식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 둘째는 기존의 기자 관련 역사적 인식의 정립 과정과 그 내용을 돌이켜 보는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 종전에 한국 역사상의 기자를 중국에서 동래한 기자로 인식하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문헌 사료에 대한 지리고증 및 기타 역사 문물 고증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인식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내용과 경향을 보이는 연구들이 대종을 이루지만, 다른 한편 어학 쪽에서의 고찰도 일정시대부터 하나의 맥을 형성하면서 기자의 어원과 그 용례 및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보이고 있다. 후자의 경우 삼국시기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서 자리잡은 기자 및 그의 동래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배경 및 그러한 인식의 목적과 결과 등을 문헌 사료의 분석을 행함으로써 중국 은인으로서의 기자의 한반도 동래와 그의 교화에 의한 국가의 문명화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의 실체를 해명하고 있다.

이렇게 양 쪽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殷人 기자의 한반도 동래와 그에 의한 한반도 선주민의 문명 교화라는 기존의 인식에는 적지 않은 의문을 낳는다. 아울러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된 기자의 동래와 그에 의한 문명 교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 역시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현대의 연구 성과들은 조선 왕조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정립하였던 기자와 관련된 역사적 진리체계에 대한 비판적 해체, 그러한 정치적 이념

의 생산자이자 지지자이기도 했던 중화를 지향하였던 당시대 유학자들의 허위의식의 비판과 해체의 방법과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의식이나 잘못된 인식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의 <<竹書紀年>>, <<史記>>, <<漢書>>地理誌 등의 기록을 거치면서 점차로 굳어진 기자의 한번도 移居와 그의 교화에 대한 인식은 근대로 오면서 조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정사실화하였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 중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 사업 속에서 기자의 동래와 그에 의한 교화라는 역사적 인식을 패권주의적 사고와 결부하여 한반도 역시 중국의 영토이자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부당한 인식을 낳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는 고려와 조선 시대인 및 전근대는 물론 현대까지 이어지는 중국 학자들의 기자와 관련된 인식과 그들의 문제점에 대한 현대 한국학자들의 반론과 비판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닐 수 있는 의의는 몽골어 내지 알타이어 관련 자료들에서 사용된 개념과 한국 고대사와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기자’를 재발견하고 그 의미를 현대 연구에 덧붙임으로써 새로운 기자 인식의 장을 열고자 하는 점이다. 그로써 전통적인 기자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자와 관련하여 조장된 허위의식의 반증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셈이다.

2. 기자 및 그의 동래에 관한 중국인들의 인식

기자 동래에 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반론은 모두가 고대 한민족의 기원과 이동 및 한반도 정주, 그리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변 민족이란 중국의 한족을 비롯하여 동이족, 선비족, 거란족 등을 의미한다. 전래적으로 箕子는 중국 은나라 말기의 현인으로서 알려진 인물이며, 그의 행적에 대한 인식에는 사료마다 출입이 작지 않지만 대체로 武王의 주나라 건립을 전후한 시기에 그가 동쪽의 朝鮮으로 갔고 그 후 무왕에 의하여 朝鮮侯에 봉해졌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하여 조선이 교화되었다고 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에서 기자에 관한 인식은 시대마다 변화가 이어졌고, 그 변화의 결과 후대로 오면서 기자상을 조성하는 사료는 더욱 풍부해지고 그에 입각하여 기자의 행적과 업적은 더욱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갖추어 왔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시대마다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기자상의 정립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자 인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한편으로는 후대로 오면서 넉넉한 자료의 습득에 의한 연구의 정밀화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로 기자상의 인위적 조성 내지 가공적 구성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면도 적지 않다.

현대에 들어와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을 품고 기자의 실재와 그의 동래와 관련된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예를 들면, 이 때의 朝鮮이라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현재 한반도 거주민의 선주민의 거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 아울러 당시에 朝鮮侯에 봉해졌다고 하는 箕子는 과연 은말의 三賢으로 숭앙되던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살피기 앞서서 일단 기자 및 그의 동래와 관련된

인식의 근거가 되는 중국측 문헌과 한국측 문헌을 고찰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존의 비판적 고찰의 핵심적 내용들을 되짚어 보도록 한다.

箕子에 관한 중국측 사료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竹書紀年>>의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은나라 紂王 51년에 주왕이 기자를 가두었고 왕자 비간을 죽였고 미자는 달아났으며, 주 무왕 16년에 기자가 와서 조회하였다.¹ 이 기사에서는 기자가 죄수가 되어 갇혔다가 은이 망하고 주가 건국된 다음 기자가 무왕에게 조회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었을 뿐이다. 기자가 주 무왕에게 조회하였다는 사실은 신하로서 무왕을 섬겼다는 의미를 시사한다. 그러나 <<상서>> 周書 武成篇에서는 무왕이 은을 정벌하고 나서 箕子를 가둔 것을 석방하고 比干의 묘를 봉분하고 商容의 마을에 경례하며 鹿臺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鉅橋의 곡식을 풀어서 크게 사해에 주니 만백성이 기뻐하여 복종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² 이로써 본다면 이 시기까지 기자의 주 왕실과의 조회나 주 왕실에서 책봉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또 홍범편에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무왕과 기자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13祀에 왕(무왕)이 기자를 방문하였다. 왕이 이에 말씀하였다. “아 기자여. 하늘이 속으로 하민을 안정시켜 거처하는 것을 도와 화합하게 하시니, 나는 그 병이와 인륜이 퍼지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들으니 옛날 곤이 홍수를 막아 오행을 어지럽게 진열하자 상제가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내려주지 않으시니, 이륜이 무너지게 되었다. 곤이 귀양가 죽고 우왕이 뒤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 주시니 이륜이 퍼지게 되었다. 첫번째는 오행이고 다음 두번째는 공경하되 오사로써 함이요, 다음 세번째는 농사에 팔정을 씀이요, 다음 네번째는 합함을 오기로써 함이요, 다음 다섯번째는 세움을 황극으로써 함이요, 다음 여섯번째는 다스림을 삼덕으로써 함이요, 다음 일곱번째는 밝힘을 稽疑로써 함이요, 다음 여덟번째는 상고함을 庶徵으로써 함이요, 다음 아홉번째는 향함을 오복으로써 하고 위엄을 보임을 육극으로써 하는 것이다.”³

그런데 이 글에 뒤이어 편찬된 <<사기>>에서는 기자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이 보인다. 이 글의 기자에 관한 기록은 이전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있다. 우선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자는(마음은 기는 국명이고 자는 벼슬이라고 말하였다.) 주왕의 친척이다. 주왕이 처음에 상아 젓가락을 만들었을 때 기자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가 상아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반드

¹ <<竹書紀年>> 紂王 五十一年 王囚箕子 殺王子比干 微子出奔 周武王 十六年 箕子來朝

² <<尚書>> 周書 武成篇, 釋箕子囚, 封比干墓, 式商容閭.

³ <<尚書>> 周書 洪範,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 王乃言曰, 嗚呼, 箕子. 惟天陰瀨下民, 相協厥居, 我不知其彝倫攸斁. 箕子乃言曰, 我聞, 在昔, 鯀陞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彝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斁.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

시 옥배를 만들 것이고, 옥배를 만들면 반드시 먼 곳의 진귀한 물건을 생각하여 이르게 할 것이라 하고 하였다. 수레 마차 궁실이 점차로 늘어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만둘 수 없었다. 주는 사람됨이 음일하여 기자가 간하여도 듣질 않았다. 사람들은 간혹 떠나도 된다고 말하지만 기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서 임금에게 간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떠나면 이는 임금의 악을 드러내어서 스스로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되니 나는 차마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남의 노비가 되어서 마침내 숨어서 거문고를 타면서 스스로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전하여 ‘기자조’라고 하였다.(<<풍속통의>>에서는 그 도가 막혀서 근심하면서 지은 것이니 그 곡을 명명하여 操라고 하였다. 조라는 것은 재해를 만나서 곤액 궁박하여 비록 원한스럽고 실의하였더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를 즐기면서 그 절개를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왕은 주를 무경녹보에 봉하고 殷祀를 잇게 하고 관속 채숙으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하였다. 무왕은 은 정벌을 마친 뒤 기자를 방문하였다. 무왕은 “아 하늘이 말없이 하민을 내셔서 그들의 삶이 조화되도록 하였으나(공안국은 말했다. 하늘이 말하지 않고 하민을 내셔서 그들의 삶이 화합되도록 도우셨으니 상생의 바탕을 둔 것이다.) 나는 그 常倫의 순서를 모르겠다.(공안국이 말했다. 나는 하늘이 백성의 향상된 도리와 차서를 정한 까닭을 알지 못하겠으니 어떠한 순서인가를 물은 것을 말한다.) 기자는 대답하여 말했다.(중략) 이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으니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 뒤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러 가면서 은나라 유희를 지나쳤는데 궁실에 무너지고 禾黍가 자라난 것을 보고 기자는 마음이 아파서 곡하고 싶었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읊이라도 하고자 그의 가까운 부인에게 麥秀의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붙여서 읊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맥수가 점점 자라나고 화서가 넘실거리니 저 교활한 아해여 내가 너로 인하여 슬프구나. 이른바 교활한 아해는 주이다. 은민이 그것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두예가 말하길 양나라 몽현에 기자충이 있다.)⁴

이렇게 <<사기>>에는 이전의 다른 서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기술되었다.

⁴ <<史記>> 三十八 宋 微子世家 第八 箕子者(馬融曰箕國名也 子爵也) 紂親戚也 紂始爲象著箕子嘆曰 彼爲象著 必爲玉柘 爲柘則 必思遠方珍怪之物而御之也 與馬宮室之漸 自此始 不可振也 紂爲淫泆 箕子諫不聽 人或曰 可以去矣 箕子曰 爲人臣諫不聽而去 是彰君之惡 而自說於民 吾不忍爲也 乃被髮佯狂而爲奴 遂隱而鼓琴以自悲 故傳之曰 箕子操(風俗通義曰 其道閉塞 憂愁而作者 命其曲曰操 操者言愚菑遭害 困厄窮迫 雖怨恨失意 猶守禮儀 不懼不懼樂道而不改其操也) 武王封紂子武庚祿父 以續殷祀 使管叔蔡叔傅相之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武王曰 於乎 維天陰定下民 相和其居(孔安國曰 天不言而默定下民 助合其居 使有相生之資也) 我不知其常倫所序(孔安國曰 言我不知天所以定民之常道理 次序 問何由) 箕子對曰(中略) 於是 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其後 箕子朝周 過故殷墟 感宮室毀壞生禾黍 箕子傷之 欲哭而不可 欲泣 爲其近婦人 乃作麥秀之詩 以歌詠之 其詩曰 麥秀漸漸兮 禾黍油油 彼狡童兮 不與我好兮 所謂狡童者 紂也 殷民間之 皆爲流涕(杜預曰 梁國蒙縣 有箕子冢)

첫째 기자가 은왕실에서 주임금의 신하로서의 행적, 둘째 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그의 처신과 그로 인하여 ‘기자조’란 곡으로 불려지는 악곡을 연주했다는 사실, 셋째 무왕이 은 정벌을 마친 뒤 기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물었다고 하는 점, 넷째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 다섯째 기자가 주왕실에 조회하러 갔었고 그 때 맥수의 시를 지어서 불렀다는 사실 등이다.

이러한 기록은 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사임에 틀림없는데 사마천이 이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인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사항이다. 아직까지는 그의 역사가로서의 역사 사실에 대한 고증 노력의 치밀함과 성실성에 기대어 이를 믿어야 한다는 전래의 입장과 그 반대로 사마천 역시 이를 당시의 전설에 의하여 구체적 물증이 없이 기술한 것이라는 擬古의 태도가 공존한다. 그리고 그의 기술에는 기존의 문헌에서 기록한 기자의 행적과 다른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죽서기년>>과 <<서경>> 무성편에서 함께 언급하였던 箕子囚의 사실이 빠진 것,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분명히 밝힌 점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추가된 것은 箕子操라는 악곡의 제작과 연주, 조회하러 가는 기자와 관련된 일화(맥수의 시) 등이다. 이와 더불어 사마천의 기술에 대한 주석으로 제기된 내용들도 주목되는 것이다. 첫째 마옹의 기는 국명이고 자는 작명이라는 것, 둘째 양국 몽현에 기자 무덤이 있다는 두 예의 주석이 그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아직 기자의 조선에서의 교화활동과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전한서>> 지리지 예서는 그러한 언급이 시작되는데 그 기술의 내용에서 기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보이고 있다. 이 내용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나라의 도가 쇠하면서 기자는 은나라를 떠나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와 田蠶과 織作으로써 가르쳤다. 둘째, 낙랑의 조선민의 범금 팔조와 미풍양속이 인현의 교화의 결과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현이란 바로 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 기록은 기자의 조선민에 대한 교화가 기정사실화된 첫 번째 기사이다.

그리고 <<삼국지>> 韓傳中에 朝鮮侯 準이 衛滿에게 쫓겨서 韓地로 망명하여 韓王이 되었다는 대목에 주역으로 魏略의 逸文을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자의 후손이 조선후로서 주왕실이 쇠하여지자 연이 스스로 높여서 왕노릇을 하고 동쪽 땅을 공략하고 할 때 조선후 역시 자칭 왕이라 하고 군사를 일으켜 거꾸로 연을 쳐서 주왕실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그 나

⁵ <<前漢書>>地理誌 二十八下 地理誌 第八下, 殷道衰 箕子去之朝鮮(師古曰 史記云 武王伐紂 封箕子於朝鮮 如此不同) 教其民以禮儀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師古曰 八條不具見)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俗猶羞之 嫁娶無所讎(師古曰 讎匹也 一曰 讎 讀曰售)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師古曰 辟讀曰僻) 其田民飲食以籩豆(師古曰 以竹曰籩 以木曰豆 若今之槃也 槃音其敬反) 都邑頗倣効吏及內部郡賈人 往往以杯器食(師古曰 都邑之人 頗用杯器者 効吏及賈人也 放音甫往反) 郡初 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 寢多至六十餘條 可貴哉 仁賢之化也

라의 대부 禮가 간하여 그만두었고 禮西로 하여금 연을 설득하여서 공격을 그만두게 하였다
는 역사를 기술하였고, 나아가 準이 연나라 망명객인 衛滿을 대우해주었으나 결국 위만이
준을 쫓아내었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⁶ 그리고 “將其左右宮人 走入海居韓地 自號韓王”의
주로 인용된 魏略의 글은 기자의 자식과 가족으로서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韓이라는 성
씨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서 기자의 후손이 한씨족이 됨을 밝히고 있다.⁷

<<三國志>> 이하 晉書(地理誌 樂浪郡條號) 梁書 諸夷傳, 南史 東夷傳, 隋書 東夷傳, 舊唐書
東夷傳, 通典 邊方門 東夷等에 모두 기자의 東來教化說을 내걸고 있다. 특히 舊唐書 高麗傳
과 新唐書 高麗傳에 전하고 있는 侍中 裴矩와 中書侍郎 溫彥博 등의 上奏는 이러한 기자 동
래와 그의 조선 교화를 언급하고 있어서, <<한서>>지리지 이후 중국인들은 기자가 조선(한
반도)에 동래하여 조선민을 교화하였다는 인식이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의 학자들도 이러한 사고를 부인하지 않고 韓族과 漢族 사이의 역사 문화 동원성
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傅斯年은 <<詩>> 商頌 ‘天命玄鳥 降而生商’이란 신화를 朱蒙
神話와 비교연구한 결과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신화라 하고 그의 <<東北史綱>>에서 “이러한
이야기의 줄거리는 商의 초창시대부락과 진한이래 동북부락은 다 一源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말하며 적어도 그 문화의 밀접한 접촉과 혼합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하였
다.⁸ 또 芮逸夫는 그의 <韓國古代民族考略>에서 <<한서>>에 기재된 고주몽의 卵生說話를
중시하여 이것은 <<論衡>>의 吉驗篇, <<魏書>> 고구려전, 高句麗好太王碑,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朝鮮實錄本紀>>, <<靑太祖武皇帝實錄>> 등 諸書에 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東北亞 부족의 보편신화임을 알 수 있으며 그 근원은 한군데서 온 것이라 보는 입장
을 취하였다.⁹

또 현재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동북공정사업에서는 한민족이 고구려와 기자
조선을 자국의 역사로부터 도용해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¹⁰ 고구려 및 기자조선과 관련
된 이 글의 핵심적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나라 이후 중국은 동북지역 관할했
다. 2) 隋와 唐은 고구려 상대로 통일전쟁 시도, 3) 고구려는 중원왕조로부터 독립하려고 하

⁶ <<三國志>> 韓傳中,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의 주, 魏略曰 昔箕子之後 朝鮮
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
止 使禮西說燕 以止之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乃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 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
燕王 朝鮮與燕 界於淇水 及綰反入匈奴 燕人衛滿 亡命爲胡服 東渡淇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中國亡命爲朝鮮藩屏 準信寵之 邦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 黨衆稍多 乃詐
遣人告準言 漢兵十道至 求入塾衛 遂還攻準 準與滿戰不敵也

⁷ 魏略曰 其子及親 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⁸ 이상은, <韓國民族起源과 箕子朝鮮의 問題>

⁹ 상동

¹⁰ 中國光明日報 2003년 6월 24일자

지 않았다, 4) 고구려는 漢나라 안에 있던 지방정권, 5) 고구려인은 당에 대해 蠻국의 한 품지 않았다, 6) 패망한 고구려인 절대다수는 중국에 同化, 7) 왕건이 세운 고려는 삼한을 계승하였으므로 고구려와 무관, 8) 왕건은 낙랑군에 있던 漢族의 후예, 9) 삼한의 후예는 한번도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10) 元나라인 탈탈 등이 ‘宋史’ 쓰면서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잘못 기술, 11) 기자조선부터 고구려까지 몽땅 조선사로 편입시킨 것은 ‘明史’의 실수, 12) 왕건은 ‘고려’를 도용, 이성계는 ‘조선’을 도용함, 13) ‘고구려사 연구에서 발생하는 학술적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기자조선 및 고구려와 관련되는 논지를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상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까지 고구려인의 거주지는 기자조선(은나라 말기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단군조선에 이어 세웠다고 하는 나라)의 관할구역 안에 있었는데 기자는 주나라의 지방 제후 중 하나였다. 한나라 시대에는 衛氏朝鮮(한국에서는 위만조선이라고 한다. 한나라 고조는 중국을 통일한 후 노관에게 연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이때 노관의 부관으로 있던 衛滿이 1000 여명을 이끌고 패수를 건너 고조선의 準왕을 찾아가 왕위를 빼앗고 도읍을 왕검성으로 옮겼는데 이를 위만조선이라고 한다. 위만조선은 한나라의 지원을 받아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이웃한 진번군과 임둔군 등을 복속시켜서 고조선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나라가 되었다.)이 기자조선을 대신했는데 위씨조선은 여전히 한 왕조의 종속국이였다. (중략) 수나라때 만들어진 裴矩傳이라는 책을 보면 “수나라의 통치자는 ‘고구려의 영토는 원래 孤竹國(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다. 주나라 때 이 땅을 기자에게 봉했다가 한나라 때는 3군으로 나뉘었다. 쯤나라 시절에도 여전히 요동(요하 동쪽으로 동북과 같은 말이다.) 지역은 진나라의 관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신하로 칭하지 않고 별개의 외지가 되었다. 그래서 先帝께서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고구려를 계속 정복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다. 또 冊府元龜 帝王府 親政二에는 “당 태종 또한 ‘요동은 원래 중국의 토지인데 주나라 때부터 위나라 때까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나라의 왕은 일찍이 네 번이나 군대를 파견해 공격한 적이 있으나 모두 패하고 돌아왔고 고구려인은 수많은 중국 평민을 죽였다. 지금 고구려인은 국왕을 살해하고 자만에 빠져 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죽은 중국사람들의 자녀를 위해 복수할 것이다. 고구려인들을 도와 왕을 죽인 자들을 토벌할 것이다.(중략)’는 내용이 있다. (‘책부원귀’는 서기 1005년 송나라 정종 때의 왕흥약과 양억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類書이다.) “원래는 중국 것이다.”, “비록 중국 대부분의 토지가 평정되었지만 단지 이 한곳만 평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당 태종이 고구려 지역을 전통적인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¹¹

이 글에서는 기자조선이 기자가 와서 세운 나라라는 인식, 고구려는 기자조선의 영역에 있었던 지방 제후국이라는 인식, 따라서 기자조선이나 고구려는 모두 중국의 역사에 속하는

¹¹ 상동

국가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고구려와 고려는 별개의 나라이며, 기자조선과 삼한도 별개의 종족임을 주장하는 것이 동북공정의 논리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宋史와 明史의 오류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이러한 동북공정의 논리는 전통시대의 역사인식과 달리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자국의 역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제시된 대만 학자 勞榦은 전통적인 기자에 관한 인식에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던 전설이다. 그러나 紂의 포악한 정치하에 있어서 기자가 어떻게 한 번은 狂奴로 되었다가 또 어떻게 조선에 가서 조선을 개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주무왕 때에 다시 한 번 入朝하여 <홍범>을 바치게 되었는지 모두가 다 약간의 기괴성을 띤다. 箕朝의 後는 기자의 후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當地部落에 기자의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의 후라고 稱託한 것인지도 모르나 역시 실증할 도리가 없다.¹²

3. 한국에서의 기자에 관한 인식

현존하는 최고의 사서인 <<三國史記>>에서는 삼국 중 신라왕조를 고조선과 직결하고 정통 왕조로 보면서, 箕子에 관한 것은 年表와 雜誌 祭祀條 중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三國遺事>> 紀異篇에서는 箕子が 檀君의 뒤를 이어 조선왕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정식 고조선의 후예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舊唐書>> 東夷列傳 高麗條에서는 고구려의 풍속 가운데 기자를 숭배하는 풍속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풍속은 淫祀가 많은데 靈星神과 日神, 河汗神, 箕子神을 섬겼으니 모두 10월에 왕이 스스로 제를 지냈다.¹³ 한영우는 기자신에 대한 제사를 고구려인의 기자조선 시조신에 대한 제사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고구려 제천대회에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부여, 그리고 고구려의 시조신들이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국왕과 국민의 제사를 받은 사실은 고구려 지배층들이 혈통상으로 단군 기자 부여의 족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이면서 이념상으로도 조선과 부여의 계승자임을 표방한 것으로 본다고 이해한다.¹⁴ 그리고 그는 중국측 사서에 고구려의 기자신 제사가 음사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고구려의 고유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 그는 고려 태조 16년 당나라 사신이 고려 태조를 고려 국왕에 책봉하는 조칙을 가져왔는데 그 글 속에 “고주몽의 啓土(건국)정신을 좇아서 군장이 되었다는 것과 기자가 중국의 제후가 된 전력을 밝아서 온화한 예의 정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¹⁵이라는 내용에 의하면 고려를 기자와 고주몽의 계승자로 평가하는 것이 중국 당나라의 입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때에 고려가 기자와 관련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인정했다는 기사는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¹² 이상은, <한국민족기원과 기자조선의 문제>에서 재인용

¹³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 河汗神 箕子神 皆以十月王自祭之

¹⁴ 한영우, <고려~조선전기의 기자 인식><<한국문화>>3

¹⁵ 高麗史

한영우에 의하면 고려가 국가의 차원에서 기자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숙종대부터인데, 숙종 7년(1102) 禮部에서 기자의 무덤을 찾아낼 것과 기자 사당을 평양에 건립하여 제사할 것을 주청하였고 그것이 수용되어서 기자사당이 건립되고 국가의 사전에 오르게 되었다. 예부가 기자 제사를 주청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영우에 의하면 고려의 이러한 정책과 관점의 변화는 중국의 기자 중국제후설을 수용한 때문은 아니고, 오히려 기자를 통해서 서경(평양)의 오랜 전통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것을 국가적 긍지로 승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려의 이 같은 정책은 단군과 고주몽을 결합함으로써 혈연적 동일체 의식을 강화하고, 기자를 재인식함으로써 문화적 자존의식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 고려의 기자관련 정책의 본래의 취지였다고 해석한다. 한영우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자 인식의 내용이 1) 기자가 주 왕실의 책봉을 받은 제후로서 한국사상 최초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 2) 기자의 아름다운 전통이 고구려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정립되었는데 이는 중국측 문헌에 입각한 기자 인식의 선구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三國遺事>>의 古朝鮮조도 역시 기자가 무왕의 책봉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만 기자에 의한 교화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글의 다음 내용이 그것이다.

(단군 탄생관련 신화 부분 생략) 이름하여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 중국 당요의 즉위 50년(庚寅)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고 불렀다. 또한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고 다시 궁홀산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또한 지금의 미달이다. 나라를 다스린 것이 1500년이다. 주나라 호왕(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겨가고 뒤에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니 수는 1908세였다.¹⁶

<<삼국유사>>의 기사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기자조선과 馬韓의 역사적 계승관계를 처음으로 제시한 점이다. <<삼국유사>> 마한조에서는 <<魏志>>의 글을 인용하여 “위만이 조선을 공격하니 왕 준은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서 한지에 이르렀다. 나라를 열고 마한이라고 불렀다. 최치원은 마한을 고구려 땅이라고 하였다.”¹⁷ 이러한 역사 계승의 관계는 이후 무신정권시기에는 기자조선-변한-고구려-고려라는 계통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어쨌든 기자조선의 삼한 계승이라는 의식이 정착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다.¹⁸

¹⁶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¹⁷ <<三國遺事>> 馬韓條, 魏志云 魏(=衛)滿擊朝鮮 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 崔致遠云 馬韓麗地

¹⁸ 한영우, 전계논문. 이 글에서는 이미 金의 외교문서에 이러한 인식이 보인다고 함으로써 이것이 고려인들만의 독단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삼국유사>>와 동시대에 제작된 역사서인 <<帝王韻紀>>에서는 연대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단군조선 멸망후 164년 뒤箕子가立國했다고 하는 점(<<삼국유사>>에서는 기자가受封한 뒤 단군이 장당경으로 피한 것으로 보는 것과 다름.), 기자가 나라를 세운 시기는 양서가 다같이 주 호왕(무왕) 원년 己卯로 보고 있으나 단군의 終年을 1908년(유사), 1028년(운기)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제왕운기>>는 기자가 주 무왕의 책봉을 받고 조선에 온 것이 아니라 무왕이 그를 풀어주자 몰래 도망하여 온 뒤에 스스로 나라를 세웠으며 무왕이 이를 듣고서 제후로 봉하자 신하의 예가 없을 수 없어서 사례하기 위해 들어가 뵈었다는 것이다. 무왕이 홍범구주를 물은 것은 주무왕 13년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는 <<상서대전>>에 의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기자가 ‘先建國 後受封’한 것이 되어서 기자가 비록 주의 신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무왕에게 홍범구주를 전수하여 조선왕으로서 중국 천자를 교화했다는 금지도 담겨 있다.¹⁹ 여기서 기자=중국인, 은인이라는 인식을 내세우지 않았다.

<<제왕운기>>는 기자조선이 41대 928년간 지속되었다는 것, 41대 준왕이 金馬郡으로 이거하여 도읍을 정하고 다시 임금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 사이 기자가 남긴 유풍이 찬연히 전해졌다고 하여 기자조선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삼국사기>>처럼 팔고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범구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²⁰ 928년만에 망한 뒤에도 금마군으로 移都했다고 하여 그 후속을 인정하지만 <<유사>>처럼 마한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제왕운기>>에서는 마한을 壬儉城, 즉 서경으로 인식하여 마한이 고구려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또 마한을 비롯한 삼한 70여국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한다. 따라서 기자조선이 혈통상 삼한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점은 마한을 기자계로, 진한을 秦人 혹은 燕人, 변한을 出自不明으로 이해한 <<유사>>와 매우 다르다.²¹

4. 조선시대의 기자조선 및 그의 업적에 대한 신봉

고려시대에는 기자조선이 우리의 역사에 자리를 잡아서 정착해가는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오면 기자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그것이 정치와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 다양하고 그리고 깊숙하게 반영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기자의 위상을 개국시조인 단군과 더불어 문명화 시조로서 기자를 높이는 의식이 자리잡아 갔으며, 이를 왕실과 관리 및 재야 유림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전기부터 지속된 일련의 기자 선양사업의 과정이 밝혀졌으며 이 연구를 통해서 조선의 왕실과 조정이 중국에 사대를 하면서도 독립국가 의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자의 존재와 그 업적에 대한 우선 가장 커다란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朝鮮이라는 국호의 선택이다.

鄭道傳이 찬한 <<朝鮮經國典>>國號條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하게 된 것은 과거의 기자조선의 실재를 연유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그가 찾은 의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¹⁹ 한영우, 전개논문, 31쪽

²⁰ 한영우, 상동

²¹ 한영우, 상동

로 꼽을 수 있다. 1) 기자가 주무왕의 책봉을 받아 군주가 되었다는 것과 조선 태조가 명의 책봉을 받아 군주가 된 것을 중시, 2) 기자의 문화적 업적 특히 팔조교와 홍범구주를 상호 연관시키고, 홍범과 팔조교가 연결됨으로써 주문화와 조선문화는 동일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사고를 보이고 있다.²² 정도전 등 개국의 주역은 주나라와 같은 문화국가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과 관련된 국호 제정의 명분을 지닌 것이다.²³

태종대부터 세조대까지는 단군과 기자를 역사적 실존인물로 간주하고 그들의 실존과 업적을 통해서 문화국가라는 의식과 중국에 대한 독립국가 의식을 고양시켜왔다. 이러한 의식의 고양 작업의 구체적 내용에는 각 왕의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태종대까지는 기사사당에 단군을 합사하다가 이들을 고려 태조에 대한 제사와 동등한 급의 中祀로 승격시켰던 일, 세종대에 와서는 관리들이 단군의 사당을 독립시킬 것을 주청하였으며 기자가 무왕으로부터 受封은 했지만 不臣했다는 이른바 ‘箕子不臣說’이 왕을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새롭게 의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사불신설은 특히 세종이 강조하였으며 그는 卞季良에게 교지를 내려 기사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 제문에서 변계량이 소개한 기자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1) 공자는 문왕과 기자를 易象에서 병렬하고 三仁이라 칭하였다. 홍범은 夏禹 때 얻었으나 천여년 뒤에 기자가 이를 무왕에게 전함으로써 洛書天人的 학을 후세에 알리게 되었으니 斯道에 공이 크다. 2) 기자는 무왕의 스승으로서 조선에 봉해져서 대도를 알려주고 至治의 혜택을 입혔다. 정전제와 팔조교를 시행하여 세세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夷를 華로 바꾸어 놓았다.²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기자의 업적으로 중국 및 한국의 각종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정전제 시행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는 평양에 남아있는 井田制遺址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신하가 한국의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지녔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세조대에는 단군(조선) 기사(후조선)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체계를 정립하였는데 權擘의 <<應製詩註>>가 그러한 작업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대의 기사인식에는 전대의 기사 인식을 이어가면서도 그 강조점이 달랐다. 대표적인 사서는 <<삼국사절요>>, <<동국통감>>인데, <<삼국사절요>>에서는 세종때에 크게 의식되었던 기자의 不臣之志라든가 또는 그의 치적으로서 홍범전수와 정전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예의 田蠶 織作을 가르치고 팔조교를 지은 사실만이 강조되었다. 팔조교의 내용이 언급되면서 仁賢之化가 이루어졌음을 칭송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기사후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전 사서들보다 더 자세한 기술을 한 점이다. 즉 箕子史로부터 箕子族史로 그 기술의 내용이 확장된 것이다. 마한을 기사계로 보는 것은 <<제왕운기>> 및 <<동국세년가>>의 역사체계와는 다르다.²⁶

<<동국통감>>은 처음으로 본문에 기자의 국적을 밝혀서 殷太師로 호칭하고 있으며 은의

²² 한영우, 상동

²³ 한영우, 상동

²⁴ 한영우, 상동

²⁵ 한영우, 상동

²⁶ 한영우, 상동

三仁事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의도는 도학적 명분과 의리의 구현자로 기사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기사 개인에 대한 숭배의 경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²⁷ 또 기자문화를 三代之治라는 중국문화의 전달자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 이 사서라고 평가된다.²⁸ 이 사서에는 <<天運紹通>>에서 따온 涵虛子의 언급을 인용하여 “儒術을 돈독히 하여 중국의 風教를 釀成하였다”고 하는 하여 기자에 의한 중화문화의 수용과 정착을 매우 의미가 높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 사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자의 업적은 세 가지로 꼽힌다. 1) 詩書를 가르침으로써 중국의 예악 제도와 삼강 오륜을 알게 되었고, 2) 팔조를 가르침으로써 신의와 유술을 숭상케 하였고, 3) 兵鬪를 배격하고 덕치를 숭상하여 이웃나라들이 모두 그 정신을 본받아 서로 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衣冠제도가 중국과 같아지게 되고, 시서예악의 나라, 혹은 인의의 나라로 불리게 된 것은 모두 기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동국통감>>의 기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이다.²⁹ 따라서 <<동국통감>>의 箕子像 箕子朝鮮像은 기사 및 기자조선의 사대성을 표방하였고, 이 사서의 인식이 이후의 기사상과 기자조선상에 대해 일정한 표준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성종 시대에 흥성하였던 성리학의 정통의식과 문명의식이 하나의 중요한 관점과 의식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대의 徐居正은 그의 <<筆苑雜記>>에서 이 <<천운소통>>의 기사 전문을 실으면서 각 조목을 비판하여 결국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³⁰

이와 더불어 돌아볼 수 있는 것은 16세기 사림의 기사인식이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저술로는 일단 朴祥(1474~1530)의 <<동국사략>>(1519~1530경)과 柳希齡(1522)의 <<標題音註東國史略>>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尹斗壽의 <<箕子志>>와 李珥의 <<箕子實記>>도 이와 관련되어 거론되는 것이다. 특히 <<기자실기>>는 기사를 ‘동방에 있어서 왕도의 유일한 구현자’³¹로 높이고 있다고 평가되기까지 한다. <<기자실기>> 안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나라 사람은 단지 관중과 안영이 있는 줄만 아니 이는 진실로 우물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洙泗의 유자들은 공부자의 미언을 깊이 풀어내고 洛閩의 선비들은 오로지 정주가 남긴 가르침만을 전하기에 이르렀으니 역시 그 이치와 마땅함이 있는 것이다. 우리 동방에서는 箕子의 망극한 은혜를 입어서 그의 진실한 자취에 대해 마땅히 집집마다 칭송하고 사람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³²

²⁷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²⁸ 상동

²⁹ 한영우, 상동

³⁰ <기자조선에 관한 인식의 변천>

³¹ 한영우, <16세기 사림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³² <箕子實記>, 齊人只知有管晏 此固不免坐井 至於洙泗之儒 深繹夫子之微言 洛閩之士 偏傳程朱遺教 亦其理宜也 我東受箕子罔極之恩 其於實迹 宜家誦而人熟也

17세기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의 기자에 관한 저술이 나오지만 새로운 기사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록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기자의 節義를 숭상하는 점, 중국에 대한 事大와 함께 중국에 대한 자주성 등이 함께 높이 평가되는 점이였다.³³ 조선초기부터 기자조선이 정사에 편입된 이후 조선후기에는 주자학의 정통론의 영향을 받아서 기자조선을 한국사상 정통국가의 시발로 설정하는 국사체계가 수립되었다. 기자조선을 정통왕조로 설정한 사서는 남인과 학자인 洪汝河의 <<東國通鑑提綱>>(1672), 남인과 안정복의 <<東史綱目>>(1778)에서도 箕子正統論이 계승되고 있다.³⁴ 예를 들면 흥여하는 단군의 문화유품을 전설적 부분으로 간주하고 당시까지 전통적으로 분류하던 국가 계통이었던 단군-기자-위만의 三朝鮮을 처음으로 완전히 거부하고, 箕子와 馬韓을 정통왕조로 인정하는 정통론을 도입하였다. 문화면에서도 부자 군신 부부의 도를 모두 기자의 덕으로 돌리고 흥범의 내용을 <<사기>>와 <<상서>>를 대비하면서 전문을 수록하였고 八條教 논의를 붙임으로써 기자문화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³⁵ 이 사서는 절의를 중심으로 왕도정치라는 성리학적 문화를 내세우기 위하여 기자문화를 극단적으로 관념화한 사서라고 평가된다.³⁶ 그러나 이와 달리 許穆의 <<東事>>는 이와는 다른 시각에 의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면서 기자에 의하여 중국의 풍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풍교가 있었음을 강조한다.³⁷ 이같이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기자에 관한 역사 연구와 역사서 제작은 기자를 근거로 한국 역사의 기원을 재설정하고, 중국 주대의 三代之治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개성이 있는 中華文化의 전통이 있었음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³⁸ 남인계 학자인 안정복의 <<東史綱目>>은 그러한 태도의 대표적인 사서이며, 소론계이면서 양명학을 추구한 李種徽도 그의 문집 속의 <<東史>>에서 조선 강역을 東夏로 표방하면서 小中華意識을 시사하기도 하였다.³⁹ 또 그는 국내자료인 <<韓氏譜>>, <<奇氏譜>>, <<箕子通紀>> 등 기자후손의 족보를 이용하여 補遺를 만들어 <<箕子世家>>를 편찬하였다.⁴⁰ 특히 기자문화는 殷의 유품을 지닌 것으로서 주대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인식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해석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⁴¹ 또 그는 기자조선의 移動說을 언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동설이란 초기에는 요수의 서쪽에 거주하다가 뒤에 평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그 요지이다.⁴² 그는 기자조선의 강역을 “서쪽으로는 遼河를 지나고 동북으로는 忽汗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에 닿아 있어서 땅은 사방 사오천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³³ <기자조선에 관한 인식의 변천>

³⁴ 이우성, <조선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역사학보>>31, 1966, 이만열, <17, 18세기 사서와 고대사 인식> <<한국사연구>>10, 1974

³⁵ <기자조선에 관한 인식의 변천>

³⁶ 상동

³⁷ 상동

³⁸ 상동

³⁹ 상동

⁴⁰ 상동

⁴¹ 상동

⁴² 상동

18세기 기자 인식의 특징은 이전시대의 인식보다 학구적인 면이 엿보이고, 절의 왕도 또는 중국의 풍교라는 성리학적 관념적 기자조선 인식으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⁴³ 그리하여 자신을 동이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이문화의 원천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기자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면모를 보였다고 평가된다.⁴⁴

대한제국 성립 전후시기에는 箕子崇拜가 절정에 달해 기자를 ‘太祖文聖王’이라고 존칭하고 기자의 치적은 물론, 기자조선 歷代王의 왕명과 재위연대 그리고 각 왕의 치적이 사서에 상세하게 서술되기에 이르렀다.⁴⁵ 기자조선이 마한의 후신이라는 관점에서, 기자승배는 韓族을 민족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崇韓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만 대한제국 시대의 기자 인식은 기자를 주 무왕의 신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도망하여 독자적으로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기자의 독립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기자승배의 밑바탕에는 중국에 대한 독립정신이 깔려 있었다.

日政시대에는 기자인식이 두 흐름으로 갈렸는데 그 중의 하나인 일부 일본인 학자들은 기자조선을 중국의 식민지로 해석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사의 시발은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된다고 이해하였다.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한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에 맞서서 기자의 동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자조선을 단군조선에 예속된 제후로서 이해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학계의 인식은 기자의 동래를 부인하고, 소위 기자조선은 고조선사회에서 토착인 지배층의 교체로 이해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견해가 李丙燾의 견해이다. 그는 기자조선을 한씨조선으로 이해하고, 토착인 한씨가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실을 후세인이 미화하여 기자동래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⁴⁶ 최근의 인식을 소개하면 기자의 동래는 부인하지만, 기자의 후예, 즉 기자족의 동래는 인정하면서 기자족을 親東夷系殷人, 즉 韓族의 일파로 간주하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다.⁴⁷ 또 기자조선을 청동기문화와 무문토기를 가진 동이족의 한 국가로 이해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⁴⁸

이같이 한국학계에서는 기자 및 기자조선에 관한 인식은 아직 정설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자라는 특정 인물의 동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위 기자족의 동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기자족을 동이족의 한 갈래로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5. 기자, 기자동래, 및 기자조선과 관련된 의문

이상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기자와 그의 동래 혹은 기자조선과 관련된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기자가 殷人이라고 하는 점, 그가

⁴³ 상동

⁴⁴ 상동

⁴⁵ 한영우, <韓末의 申采浩의 역사인식><<단재 신채호와 민족사관>>1980

⁴⁶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⁴⁷ 천관우, <箕子攷><<東方學志>>15, 1974참조, 傅斯年의 <夷夏東西說>에서도 은이 夷에 가깝다는 설이 피력된 바 있다.

⁴⁸ 김정배,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1973

조선에 와서 조선을 다스렸다고 하는 점, 그리고 조선이 그로 인하여 유교적 교화를 받았다고 하는 점 등을 사실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먼저 중국측 자료들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구성된 것인데, 자료마다 사실의 기술에 출입이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작지 않다. 아울러 중국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에서의 기자 인식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혹은 사가의 관심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나타났다. 동일한 인물에 대한 상이한 인식 혹은 상이한 해석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학문적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한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종전의 기자, 기자조선, 기자동래 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그를 해소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이상은에 의하면 기자와 관련된 의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箕子란 이름은 과연 殷紂의 신하로 있던 기자를 말하는 것이냐? 둘째, 箕子가 과연 은인의 기자요, 그가 東來한 곳이 어디인가? 셋째, 기자는 과연 무왕에게 봉해졌는가?⁴⁹

이러한 의문은 현대의 한국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의문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하되 이상은의 견해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들을 함께 검토하여 가도록 한다.

첫째의 의문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申采浩의 신사학풍을 좇아서 殷人箕子說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 학설을 마련하여 왔다. 그런 대안을 모색했던 학자들은 최남선, 정인보, 이병도 등인데 이들의 학설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箕子의 箕는 고조선 고유의 명칭의 한역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를 각각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정인보는 箕는 王儉의 검의 음역이라 하였고, 최남선은 기자를 ‘기오지’란 고어의 음역이라 하고 고대 태양숭배사상에서 온 제정일치시대의 군장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병도는 箕準이 위만에 쫓겨 馬韓에 남하하여 自立爲韓王했다는 기록과 準이 남하한 뒤 그 자손 친족의 잔류자가 冒姓韓氏했다는 魏略의 기록에 따라 준의 성은 箕가 아니요 韓이요 韓은 고조선의 토착종족이므로 결국 기자조선은 한씨조선이라는 이론을 세웠다. 이른바 韓族箕子說이 그것이다. 이 같은 견해들은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는 전통적인 학설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상은은 정인보 최남선 등의 언어학적 근거에 의한 부정은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기자의 어원과 용례에 관한 추적은 기존의 한문 위주의 기록으로부터 탈피하고 새로운 검증의 방법을 열어놓은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본다면 위에 제시된 둘째의 의문에서 기자가 과연 은인의 기자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부정이 된다. 그렇지만 은인 기자가 조선으로 피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앞의 견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그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구구한 상황이다. 이상은은 기자의 동래를 오늘날의 정치적 망명과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것 자체는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보다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주 무왕에 의한 책봉 여부이다. 주 무왕에 의한 기자책봉설은 <<사기>>에서 제시된 것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서 정인보는 사마천의 造言이

⁴⁹ 이상은, <韓國民族起源과 箕子朝鮮의 問題>

라고 하여 <<사기>>의 설 자체를 부정하였다.⁵⁰ 이와 비슷하게 사마천의 설을 부인하는 것은 일본 학자들 狩野直喜 白島庫吉 今西龍 三品彰英 등이다.⁵¹ 이 학자들의 학설에는 다소 상호간 출입이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학설로 취급된다. 그 학설은 기자 동래설은 춘추전국 시대로부터 발단된 중국인들의 가공적 전설을 사마천이 사실로 인식하여 <<사기>>에다가 기입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金映遜는 역사가로서의 사마천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에 입각하여 <<사기>>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기록의 진실성은 인정하되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기자의 동래를 설명하는 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곧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는 지역인 朝鮮이 한반도의 조선이 아니라 중국 河南省 商丘縣의 朝鮮이라는 것이다.⁵² 이 지명이 처음에는 조선이었다가 蒙澤 혹은 蒙縣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고증을 하고 있다. 그러한 방증으로 <<사기>>의 관련 기록에 붙은 杜預의 주에 표기된 蒙縣에 箕子塚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였다.⁵³ 또 그는 기자란 명칭은 원래 은나라의 속국인 箕國의 자작이란 명칭이라고 하였다.⁵⁴ 그의 이러한 설명은 기자가 조선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무왕의 책봉을 받고 조회를 갔던 사실에서 그동안 중국과 한반도와의 공간적 거리 때문에 의문을 가졌던 점을 풀어주는 것이 된다.

또한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기자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특히 어학적으로 기자의 의미 및 그리고 그 어원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기>> 송세가 미자조 기자에 관한 주석에서 마옹은 箕는 국명이고 子是 子爵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명이 아니라는 인식의 근원이 된다. 또 同書 司馬彪의 주는 기자의 이름은 胥餘인데 마옹과 王肅은 기자를 紂의 諸父라고 服虔과 두예는 紂의 庶兄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⁵⁵ 丁仲煥은 이러한 설들을 종합하여 기자는 은의 宗姓이며 은의 말왕인 주의 서형 또는 제부이고, 그러므로 성은 子氏이고 이름은 서여라고 판단한다.⁵⁶ 그리고 기자라는 명칭은 封國에 의한 箕氏와 작위에 의한 子爵으로 불리워진 칭호인 셈이다. 그러나 정중환은 封의 제도는 주초에 시작된 제도이고 그러한 까닭에 마옹의 학설은 그 자체의 내용을 신빙할 만한 것은 못된다

⁵⁰ 이상은, <한국민족기원과 기자조선의 문제>에서 재인용. 이 논문에 인용된 정인보의 글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周의 敵手國으로서 뚜렷한 巨土요 大族이라 무왕이 은을 멸한 뒤 肅愼의 使介가 周朝에 갔었고 康王 때는 숙신의 사행이 있었으니 의연한 이쪽 계통은 그대로이오 管蔡의 회복운동에 淮夷의 병력을 빌어서 한참동안 고전하였으니 저 白山, 黑水로부터 遼河川西로 山東 蘇浙까지 連亘한 세력이 방장 진출기어늘” “무왕이 이러한 조선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준다는 것도 웃음고 기자가 힘드릴 것 없이 가졌다는 것도 우습다.”

⁵¹ 김수영, <기자조선고>
⁵² 상동
⁵³ 상동
⁵⁴ 상동
⁵⁵ 정중환, <기자조선고>
⁵⁶ 상동

는 입장을 취한다.⁵⁷

그런데 정중환의 논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남선이 제시한 기자의 본래의 명칭은 ‘개아지’였다는 것, 그 의미는 日子天孫이라는 설명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수용한다. 그 ‘개아지’란 명칭과 扶餘說話에 보이는 鷄子, 고구려 설화에 보이는 解慕漱며 徐偃王出生談이며 내지 鮮卑族의 奚 명칭까지도 상호 공통된 의미의 말과 설화를 가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⁵⁸ 선비족의 해란 명칭이 함께 거론된 것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중환은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글의 각주에서 奚가 箕나 鷄나 解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비족의 부족명으로 契丹의 耶律阿保機에 의하여 遼에 통합되기까지 역사상에 보이는 족명으로 <<고려사>>에도 보인다고 하였다.⁵⁹ 그의 이러한 언급은 기의 명칭이 중국의 기국의 자작이라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추론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는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아직까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론과 결론은 주지 않았다.

6. 알타이어 자료에 의한 기자 명칭의 추정

그렇다면 한족과 구별되는 부여족이니 선비족이니 혹은 고구려족이 사용했던 언어들 사이의 연관성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할 때 과연 기자라는 인명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는 매우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기자에 대한 우리 나라의 기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은 광주 판 <千字文>의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왕(王)을 나타내는 한자의 석(釋)은 ‘님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광주 판 천자문에는 ‘기자’ 왕으로 나타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⁶⁰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에서는 왕을 나타내는 한자의 석으로 ‘기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기자라는 명칭이 중국어의 기자라기보다는 우리 고유어일 가능성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⁶¹

기자라는 명칭이 왕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 역사상 이와 관련이 있는 王名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準왕이 衛滿에게 패하여 마한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⁶² 그리고 마한은 삼한으로 나뉘어 지고 다시 백제와 신라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백제의 왕을 기록한 문헌에 기자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나타나 주목을 끈다. 즉, 7세기 백제에 대한 기록인 <<周書>>(636) 異域傳 百濟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이 나타난다.

⁵⁷ 상동

⁵⁸ 상동

⁵⁹ 상동

⁶⁰ 李基文, <漢子の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제11집, 동아문화연구소, 1972, 249쪽

⁶¹ 李基文,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1998, 50쪽

⁶²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稱韓王, 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王姓夫餘氏 號於羅暇 民呼爲鞞吉支 夏言竝王也

여기서 鞞吉支⁶³는 鞞과 吉支(kiti=gis)로 나누어지며 鞞은 ‘큰’을 나타낸 단어로 생각이 되며 吉支는 기사를 나타내는 단어로 생각이 된다.⁶⁴

한편 신라의 기록에서도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⁶⁵(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位號居瑟邯⁶⁶(或作居西干⁶⁷...自後爲王者之尊稱)<三國遺事 券1, 紀異 第1, 新羅始祖 赫居世王>

여기서 赫居世란 단어는 赫과 居世로 나눌 수가 있다. 赫은 居世를 꾸미는 말로 생각이 되며 居世(kisi)는 기사와 동일한 단어로 생각이 된다. 또 居瑟邯도 居瑟과 邯으로 구분이 되며 居瑟(kisi)은 역시 기사를 나타내는 단어로 생각이 된다. 또 居西干도 居西와 干으로 구분이 되며 居西(kisi)는 역시 기사를 나타내는 단어로 생각이 된다.

한편 기자라는 명칭은 다른 언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우선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거란의 명칭에 기자라는 단어가 사용됨을 알 수가 있다. 즉,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란의 시조인 奇首(gisi)는 기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 생각이 된다.

贊曰, 遼之先,...其可知者蓋自奇首云⁶⁸, 奇首生都菴山⁶⁹

한편 거란어에 남아 있는 이 단어는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의 명칭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즉, činggis qaγan 이란 단어는 činggis 와 qaγan 이란 단어의 결합이며 qaγan 이라는 단어가 북방 유목민의 왕이나 황제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činggis 란 단어는 čing과 gis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gis는 기사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상의 예들을 통하여 기자라는 단어는 우리 고유어일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에서 사용된 용어이기 이전에 부여 고구려 한반도 그리고 만주 몽골 일대의 종족들이 공유했던 개념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본다면 기자라는 단어가 왕이나 군장 같은 통치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통치자를 나타내는 기자가

⁶³ 鞞吉支(*kiän/kian:/kien)(*kiēt/kiēt/ki)(*tiēg/tšie/chī)

⁶⁴ 李基文,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1998, 50쪽

⁶⁵ 赫居世(*χäk/χa-/hia)(*kio/kiwo/kü)(*šiad/šiai-/ši)

⁶⁶ 居瑟邯(*kio/kiwo/kü)(*siēt/siet/sê)(*kân/kân/kan)

⁶⁷ 居西干(*kio/kiwo/kü)(*siər/siei/si)(*kân/kân/kan)

⁶⁸ 奇首(*g'ia/g'jie/k'i)(*šioŋ/šiau/shou)

⁶⁹ <<遼史>> 券2, 本紀 第2, 太祖下(1343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거란어나 몽골어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중국의 학자들이 추정했던 기국의 자작이란 명칭과는 그 명명방식이나 의미상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이지만, 한반도와 몽골 거란 등이 활동했던 중국 북부 북동부에 걸친 지역의 주민들이 공용 하였던 개념일 가능성도 보인다.

한편 기자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왕이나 군장 같은 통치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기자라는 단어가 원래 무엇을 의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칭기즈칸 명칭 설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몽골의 역사서인 Erdeni-yin tobči 4권에는 다음과 같은 칭기즈칸 명칭 설화가 나타난다.

tendeče tere temüjin qan köbegün, qorin naiman nasun-dur-ıyan gi takiy_a jil-e, kerülen mören-ü ködege aral-a, qaγan orun-a sayuqui-dur, tere edür-eče urida γurban erlüge-de, ger-ün emün-e nigen dörbeljin čayan čilayun-u degere, tabun önggetü boljimur metü sibayun sayuju, činggis činggis kemen dongγudduγsan-ıyar dumda bükü dayurisqu ner_e inu sutu boyda činggis qaγan kemen qotula jüg-üd-tür aldarsijuqui.(그 때 테무진 왕이 28세 되던 닭의 해에, 케를렝 강의 허드 아랄에서 왕위에 오를 때, 그 날로부터 3일전 아침에 집 앞에 있는 네모난 흰 바위 위에 다섯 색깔의 참새 같은 새가 앉아서 ‘칭기스, 칭기스’라고 노래하였기에, 모두에게 위대하고 성스러운 칭기즈칸이라는 명칭이 사방에 유명하게 되었다.)

칭기즈칸 설화에서는 다섯 색깔의 새가 와서 činggis, činggis 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아 činggis 란 단어는 새와 관련이 있는 명칭으로 보인다. 그런데 알타이어족 언어에서 gis 라는 단어는 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음 예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Ko. gis(깃, 새의 날개 털)

Tur. kuş(=kuş)(새)

Man. gasha(새)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투르크어, 만주어에서 gis 라는 단어는 새나 새와 관련된 뜻을 나타낸다.

그러면 새를 의미하던 gis(=기자)가 어떻게 왕을 나타내게 되었을까? 이것은 몽골을 비롯한 투르크, 만주, 한국 등 북방 민족의 무속에서 새는 인간의 영혼을 지상 세계에서 천상 세계로 이끌어 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새의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이 무당이며, 고대 국가에서 무당이 통치자를 겸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gis라는 단어가 왕, 또는 통치자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자라는 명칭은 우리 고유의 단어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알타이어족 언어에 널리 퍼져 있던 단어이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상 기자 조선이 존재하

였을 경우, 기자 조선의 기자는 중국에서 책봉한 기자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기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신석기 시대인 단군 조선의 뒤를 이어 청동기 시대의 조선을 기자 조선이라고 일컬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시기 통치자의 칭호가 바로 기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주 나라에서 은 나라의 기자를 조선에 책봉하였다는 기록은 아마 은 나라의 기자와 기자 조선의 통치자인 기자가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것을 자국의 역사 해석에 유리하게 이용하여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자에 관한 인식은 자국의 문헌에서 근거를 찾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동원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에는 동북공정의 논리 기반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체로 고려시대부터 정착되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조선이라는 국호의 선택과 조선 후기 소중화라는 신념의 실체가 되고 나아가 대한제국 국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역사와 실제 인식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기자의 동래와 그에 의한 교화라는 역사적 사실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1930년대에 시작된 사학계의 비판적 고찰에 의하여 그 사실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자와 관련된 기존의 인식의 부당함을 밝히게 됨으로써 이제는 과거인의 신념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존재와 그 명칭에 관해서는 풀어야 할 의문이 많다. 본고에서는 어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몽골자료와 기타 자료를 동원하여 기자의 명칭의 용례와 그 의미를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하였다.

이미 학계에서 이루어진 기자 동래의 의미와 그 장소에 대한 추론을 결부하여 말하면, 한국에서 언급해 왔던 기자는 중국 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찍이 사용되었던 정치적 균장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였으며, 기자조선이란 한반도인들이 스스로 건립한 국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고구려인들이나 고려인들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마한(삼한)의 국가 발전 계통을 자국 역사의 기원으로 인식하였던 것도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더 타당하고 적합한 역사인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1930년대에 제기된 최남선의 ‘개아지’의 음역이라는 어학적 관점도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더욱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중환이 제시한 부여의 鷄子, 선비족의 奚, 고구려의 解慕漱 등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추론도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고찰에 따르면 아직 기자의 존재와 명칭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자는 중국의 은인의 호칭이라고 할 때 그것은 중국 역사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자가 봉해진 곳을 중국 상구현 조선(몽현)이라고 하는 견해를 수용한다면, 중국인들이 동북공정 가운데 주장하는 기자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한국에서 도용해갔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논리가 한반도 역시 그들의 영토화하려는 관점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밝힌 언어학적 차원의 기자 명칭의 새로운 의미와 용례는 중국에서 기자 인식과 한반도인의 기자 인식에는 서로 명칭 혹은 음만 다를 뿐 실제 의미나 용례에는 융합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더욱 언어학적 관심과 방법에 의하여 중국 북부와 동북 지역의 언어 개념의 용례와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면 될수록 본고에서 밝혔던 것과 같은 기자의 의미가 더욱 명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상은, <韓國民族起源과 箕子朝鮮의 問題>
한영우, <고려~조선전기의 기자 인식><<한국문화>>3
한영우, <16세기 사림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박광용,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의 변천>
이우성, <조선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역사학보>>31
이만열, <17, 18세기 사서와 고대사 인식> <<한국사연구>>10
한영우, <韓末의 申采浩의 역사인식><<단체 신채호와 민족사관>>1980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천관우, <箕子攷><<東方學志>>15, 1974 김정배,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1973
김수영, <기자조선고>
정중환, <기자조선고>
李基文 「漢子の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제11집, 동아문화연구소. 972
_____,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1998
Bernard Karlgren(1954),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The Me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Stockholm.
_____(1957), *Grammata Serica Recensa*, The Me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Stockholm, Stockholm.
M. Gō, I. de Rachewiltz, J.R.Krueger and Ulaan(1990), *Erdeni-yin tobci('Precious Summar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中國光明日報 2003년 6월 24일자